

IBK '생산적 금융' 대전환... 300조 프로젝트 가동

장민영 28대 회장 취임... "산업 체질 개선 선도적 역할" 4년간 중기·자영업 250조 배정... 전략산업 지원도 늘려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고도화... AI 기반 금융기업 전환

IBK기업은행이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제28대 장민영 은행장 취임식을 열고 새출발을 알렸다. 노사 갈등을 마무리한 뒤 공식 취임 행사를 치르며 '장민영 호'가 본격 출항했다.

장 행장은 취임식에서 '생산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장민영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의 복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IBK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장 행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으로 203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300조 원 가운데 250조 원은 중소기업

업·소상공인 부문에 배정한다. 또한 AI, 반도체, 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 전환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운전자금 중심에서 투자·설비기술 사업화 자금 중심으로 무게를 옮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여신 심사에 적극 반영해 담보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방향이다.

지역 산업 지원이라는 과제도 놓치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지역 산업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특화산업과 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IBK창공 프로그램에 더해 2026년부터 지방 우대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장 행장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장민영 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프로젝트 내용	2030년까지 300조 원 투입, AI·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 지원, 250조 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배정
금융 지원 방식	운전자금 중심 → 투자·설비기술 사업화 자금 중심으로 전환, 기술력·성장성 기반 여신 심사
지역 산업 지원	지역특화산업·국가전략산업 지원, 설비투자 특별지원·벤처펀드·IBK창공·지방 우대 프로젝트 운영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대응
신뢰·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내부통제 고도화, AI 기반 금융기업 전환 계획
자본시장·펀드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운영, 그룹 역량 결집해 금융 지원 확대
재무 실적	2025년 말 연결 기준 순이익 2조7189억 원, 별도 기준 2조3858억 원, 전년 대비 증가 451억 원

그룹 역량을 결집한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자본시장 기능도 넓힌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신뢰 금융과 자회사 부문 발전을 위해 37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회사 간 협력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고도화도 병행해 양적 확대와 건전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행장은 기업은행을 인공지능(AI) 기반 금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리스크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정보보

안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장 행장은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고객의 신뢰"라며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금융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장 행장은 개개인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돕는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업은행은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 안정 기반 위에서 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 행장은 취임 직후 서울 지역 영업점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 경영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13일 노사가 임금 교섭안 등에 합의하며 노사 갈등은 마무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임금 교섭안 등에 합의했으며, 보상 휴가 정상화와 우리사주 증액, 경영평가 개선, 업무량 감축 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 실적도 기업은행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사이의 시련이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조달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방어했다. 기업은행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조7189억 원, 별도 기준 2조3858억 원이다. 연결 기준 순이익은 전년 2조6738억 원보다 451억 원 늘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패션 이익 늘었지만 투자 축소... 신성통상 경쟁력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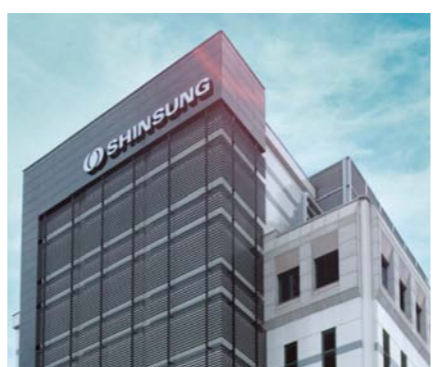
생산량 전년보다 23.1% 줄어 재고도 13.5%로 축소 마진율 유지 패션사업 비중 96.2%... 수출 위축으로 패션 의존도 더욱 심화

신성통상이 자발적 상장폐지 이후 생산량 조정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SPA 패션 수요 확대 속 경쟁사들이 외형 확장에 나서면서 이러한 보수적 기조가 탑텐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 패션사업부의 2025년 하반기(7-12월) 매출은 57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19억 원으로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결 기준 전체 영업이익이 559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3.4% 줄어든 것과 달리 패션 부문이 수익성을 방어하며 실적을 견인한 셈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생산량 감축과 재고 관리 강화가 있다. 회사는 해당 기간 생산 수량을 전년 대비 23.1% 줄이든 6385만 장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도 전기 말 대비 13.5% 감소한 3110억 원으로 축소됐다. 판매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할인 판매를 최소화하고 마진율을 유지하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변화 역시 비용 통제 기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자발적 상장폐지 이후 최대주인 가나인 회사와 연태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99.09%까지 상승했다. 외부 주주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상장사로서 요구되던 성장 압박에서 벗어나 광고선전



신성통상이 자발적 상장폐지 이후 생산량 조정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신성통상

비와 연구개발(R&D) 비용을 동시에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회사는 브랜드 광고선전비를 전년 대비 14.6% 줄인 192억 원으로 축소했고, 경성연구개발비도 15.6% 감축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25 회계연도 기준 매출 1조3524억 원, 영업이익의 2704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익을 약 20%대를 회복했다. 무신사의 자체 SPA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역시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37개까지 확대했으며, 2025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47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구조 역시 리스크 요인이다. 신성통상의 이번 반기 전체 영업이익의 가운데 탑텐, 지오지아, 올젠 등을 포함한 패션사업 부 비중은 96.2%에 달한다. 반면 과거 실적 완충 역할을 했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사업부의 반기 매출은 13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감소했다. 수출 부문의 위축으로 패션 사업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셈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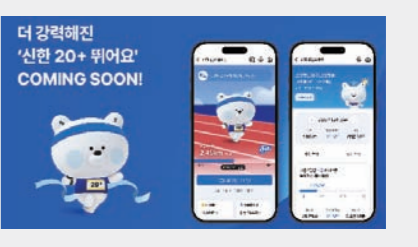
'신한 20+ 뛰어오' 리뉴얼 "건강과 금융을 동시에"

신한은행이 27일 '신한 20+ 뛰어오'를 개편해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삼성헬스·애플 피트니스 연동이 가능하며, 27일 개편 후부터 '가민 커넥트'와 '나이키 런 클럽' 앱과도 연계할 수 있다. 달리기 성향 분석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추가된다.

신한은행은 개편을 기념하며 이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 3360명을 추첨해 가민 스마트워치, 신세계 상품권,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1번가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 러닝 캐시 2배 적립 혜택도 있다. 사전 알림 신청 고객에게는 최대 마이신한 포인트 600포인트를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러닝과 금융을 함께



'신한 20+ 뛰어오'는 '신한 SOL뱅크' 앱의 기능으로 달린 거리에 따라 캐시를 적립해 준다. 신한은행

즐거워 건강관리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고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금융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3월 중 적립 리워드도 경품 교환·응모가 가능한 전용 페이지를 열고 러닝 크루(커뮤니티)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맛있는우리말 200

박재영의 맛있는우리말 200

다양한 예문과 함께 배우는 우리말 맞춤법

박재영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흥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